

2015년 9월 11일 공보 2015-9-17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5년 9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cschang@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및 미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국채금리 ¹⁾				
	14.1/4	2/4	3/4	4/4	15.1/4	2/4	15.6월		7월	8월	9.10일
미국	-0.9	4.6	4.3	2.1	0.6	3.7	미국	2.35	2.18	2.22	2.22
유로지역	0.8	0.3	1.0	1.6	2.1	1.4	독일	0.76	0.64	0.80	0.70
일본	4.5	-7.6	-1.1	1.3	4.5	-1.2	영국	2.02	1.88	1.96	1.87
중국 ¹⁾	7.3	7.4	7.2	7.2	7.0	7.0	브라질	12.62	12.97	14.27	15.27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 상무부, Eurostat, 일 내각부, CEIC

주: 1) 10년물
자료: Bloomberg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움직임을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14.3/4	4/4	15.1/4	2/4	15.5월	6월	7월	8월
GDP 성장률	2.9	3.3	3.3	2.7	2.5	2.2	-	-	-	-
GDP 민간소비	1.9	1.8	1.5	1.4	1.5	1.7	-	-	-	-
소매판매 (S.A, 전기비)	0.7	1.7	1.5	1.9	1.6	2.9	3.1	0.6	1.9	..
GDP 설비투자	-0.8	5.8	4.2	4.2	5.8	5.0	-	-	-	-
설비투자지수 (S.A, 전기비)	-0.8	5.2	1.5	5.4	8.4	5.1	0.7	12.2	6.9	..
GDP 건설투자	5.5	1.0	2.3	-1.5	0.6	1.6	-	-	-	-
건설기성액 (S.A, 전기비)	10.2	-0.8	-1.9	-5.9	-2.0	-3.8	-4.7	1.0	1.0	..
수출(통관) (일평균, 억달러)	2.1	2.3	3.6	0.9	-3.0	-7.2	-11.0	-2.6	-3.4	-14.7
제조업 생산 (S.A, 전기비)	0.7	0.1	1.2	-1.9	-1.0	-1.4	-3.0	1.5	-3.5	..
서비스업 생산	1.5	2.2	2.6	2.6	2.8	2.5	2.4	0.9	2.2	..
취업자수 증감 ¹⁾ (공공부문 ²⁾ 제외)	385.7	533.0	516.5	421.9	353.9	308.1	378.5	329.4	326.2	256.2
고용률 (전년동기대비 %p)	59.5	60.2	60.9	60.4	59.0	60.7	60.9	60.9	61.1	60.7
실업률 (전년동기대비 %p)	3.1	3.5	3.3	3.2	4.1	3.8	3.8	3.9	3.7	3.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연간 및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 가]

-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폭 확대로 전월과 같은 0.7%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균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15.4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대비, %)
소비자물가	0.4	0.5	0.7	0.7	0.7	
(전월비)	(0.1)	(0.3)	(0.0)	(0.2)	(0.2)	
▪ 농축수산물	-0.5	2.7	4.1	3.7	3.4	
(농산물)	(-1.4)	(2.6)	(5.1)	(5.1)	(3.7)	
▪ 공업제품	-0.5	-0.3	-0.1	-0.2	-0.1	
(석유류)	(-20.9)	(-19.3)	(-17.0)	(-17.3)	(-18.2)	
(석유류제외)	(3.5)	(3.4)	(3.1)	(3.1)	(3.3)	
▪ 서비스	1.6	1.6	1.6	2.0	2.0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2.0	2.1	2.0	2.0	2.1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주택가격상승률

	15.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
주택 매매가격	0.5	0.4	0.5	0.4	0.4	
▪ 수도권 ¹⁾	0.5	0.4	0.4	0.5	0.4	
(서울)	(0.4)	(0.3)	(0.4)	(0.4)	(0.4)	
▪ 광역시 ²⁾	0.6	0.5	0.7	0.5	0.6	
▪ 지방 ³⁾	0.3	0.2	0.2	0.2	0.2	
주택 전세가격	0.6	0.4	0.5	0.5	0.4	
▪ 수도권 ¹⁾	0.8	0.5	0.7	0.7	0.6	
(서울)	(0.9)	(0.7)	(0.8)	(0.7)	(0.6)	
▪ 광역시 ²⁾	0.5	0.3	0.5	0.3	0.4	
▪ 지방 ³⁾	0.3	0.2	0.2	0.2	0.2	

주: 1) 서울, 인천, 경기 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3)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자료: 국민은행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리, 주가, 환율¹⁾ 및 가계대출

	15.4월	5월	6월	7월	8월	9.10일
CD(91일)금리(%)	1.80	1.80	1.65	1.64	1.63	1.60
국고채(3년)금리(%)	1.84	1.75	1.79	1.77	1.74	1.65
KOSPI	2,127	2,115	2,074	2,030	1,941	1,962
원/달러 환율	1,072	1,108	1,116	1,170	1,183	1,194
원/100엔 환율	904	895	912	943	976	989
은행 가계대출 ²⁾ 증감(조원)	8.5	7.3	8.1	7.3	7.8	..

주: 1) 기말기준
2) 모기지론 양도 포함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